

2026. 1. 15

해외동향부 (제 7355)

- **주요 뉴스:** 미국 11월 소매판매, 전월비 증가. BofA 및 Citi 4/4분기 이익은 예상치 상회
 - 연준 주요 인사, 인플레이션 둔화 예상. 베이지북은 경제활동 개선되었다고 평가
 - 미국, AI 및 컴퓨팅 목적 이외의 반도체에 25% 관세. 환적의 경우도 대상
 - 미국 트럼프, 국가안보를 위해 그린란드 점령 필요. 對이란 압박도 강화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주요 경제지표, 중동발 지정학적 우려, 연준 독립성 논란 등이 영향
 - 주가 하락[-0.5%], 달러화 약세[-0.1%], 금리 하락[-5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순환매, 기술주 및 은행주 중심 매물 증가 등으로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헬스케어 및 광산 관련주 강세 등으로 0.2%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연준 독립성 훼손 우려 등으로 하락
유로화 가치는 강보합, 엔화 가치는 0.4%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매수세 강화되며 하락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의 영향 등으로 3bp 하락

※ 뉴욕 1M NDF 증가 1461.2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62.7원, 1.01% 하락). 한국 CDS 강보합

		1/14일	1/13일	전일대비			1/14일	1/13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926.6	6,963.7	-0.53%	국채 금리 10y	미국	4.13%	4.18%	-5bp
	유럽	611.56	610.44	+0.18%		독일	2.81%	2.85%	-3bp
	중국	4,126.1	4,138.8	-0.31%		영국	4.34%	4.40%	-6bp
	일본	54,341	53,549	+1.48%	CDS 5y	한국	21bp	21bp	+0bp
	한국	4,723.1	4,692.6	+0.65%		중국	43bp	42bp	+1bp
환율	달러지수	99.09	99.13	-0.05%	위험 지표	EMBI+	-	267	-
	유로화	1.1644	1.1642	+0.02%		VIX	16.75	15.98	+4.82%
	엔화	158.46	159.14	+0.43%		WTI유	60.02	59.15	+1.42%
	위안화	6.9729	6.9777	+0.07%	원자재	구리	609.4	601.6	+1.29%
	원화	1,477.5	1,473.7	-0.26%		금	4,626.6	4,586.5	+0.87%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11월 소매판매, 전월비 증가. BofA 및 Citi 4/4분기 이익은 예상치 상회

- 작년 11월 소매판매는 7359억달러로 전월비 0.6% 늘었고, 예상치(0.4%)도 상회. 이는 자동차 소비 회복과 연말 쇼핑 수요 호조 등에 기인. 이번 결과는 4/4분기 경제 성장이 양호함을 의미하지만, 일부에서는 소득 규모에 따라 소비 격차가 확대되는 K자형 소비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BofA)
- 작년 11월 생산자물가지수(PPI)의 연간 및 월간 상승률은 3.0%, 0.2%를 나타내 전월(각각 2.8%, 0.1%)에 비해 오름세 둔화. 근원 PPI의 경우 연간 상승률(3.5%)은 전월(3.4%) 대비 높은 수준이나 월간 상승률(0.2%)은 전월(0.7%)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 항목별로 에너지 가격은 상승했으나 서비스 가격은 안정적. 기업들이 비용 상승의 소비자 전가를 제한하는 상황인 것으로 추정
- 작년 12월 기준주택판매는 435만건(연환산)으로 전월(414만건) 대비 증가. 담보대출금리 하락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 한편, 이날 발표된 BofA와 Citi의 4/4분기 주당 순이익은 0.98달러, 1.81달러로 모두 예상치(0.96달러, 1.67달러) 상회. 반면 Wells Fargo의 경우 전년동기비 6% 늘어난 1.62달러였으나 예상치(1.67달러) 하회. 은행주 주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용카드 대출금리 제한 압박, 향후 비용 증가 및 투자은행 부문 수익성 둔화 우려 등이 제기되며 대부분 하락 마감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연준 주요 인사,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 베이지북은 경제활동 개선되었다고 평가

- 마이런 이사는 정부의 규제완화 등으로 공급 능력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며, 이는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가능하게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 미니애폴리스 연은의 카시카리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 그러나 그 정도는 다소 불투명하다고 부연. 반면 애틀랜타 연은의 보스틱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아직 목표 수준과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
- 한편, 연준 베이지북은 최근 수 개월 동안 경제활동이 개선되었다고 평가. 소비와 고용 역시 대체로 양호하다고 진단. 다만 기업들이 관세 여파로 인한 비용 증가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기 시작했다고 지적

■ 미국, AI 및 컴퓨팅 목적 이외의 반도체에 25% 관세. 환적의 경우도 대상

- 트럼프 대통령은 AI 및 컴퓨팅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지 않는 수입 반도체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포고문에 서명. 또한 미국을 경유하여 다른 국가로 환적되는 반도체도 25% 관세 대상에 포함. 이는 수입 반도체 전체를 겨냥했다기 보다는 대만産 Nvidia 반도체의 對中 수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
- 한편 베센트 재무장관은 한국 측과 원화 약세를 논의했다고 발표. 또한 원화 가치 하락이 과도하며, 한국 경제의 기초 여건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언급

■ 미국 트럼프, 국가안보를 위해 그린란드 점령 필요. 對이란 압박도 강화

-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가 안보에 필수적이며, 미국이 이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언급. 이와 관련하여 유럽의회는 항의 차원에서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 이행을 보류하는 방안까지도 검토
- 또한 이란에 대해서는, 이란 내 시위로 인한 사망자를 아직 확실히 알 수 없으나, 확인된다면 그에 맞게 행동할 것이라고 발언. SNS를 통해 이란은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 한편, 로이터는 카타르 내 미군기지 병력이 철수를 시작했다고 보도. 일부에서는 미국의 對이란 공습이 임박했다는 신호라고 분석

■ 중국, Nvidia AI 칩(H200) 반입 불허. 미국産 보안 소프트웨어 사용도 금지

- 로이터에 따르면, 관세당국은 세관 직원들에게 Nvidia의 H200 반입을 허용하지 말도록 지시. 전문가들은 이번 움직임이 4월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 또한 당국은 안보를 이유로 미국 및 이스라엘의 보안 소프트웨어도 사용을 중단하도록 통보

■ 일본은행 우에다 총재, 경제 및 물가 전망 현실화 시 금리인상에 나설 방침

- 우에다 총재는 경제 성장 및 물가 전망이 현실화되면 그 정도에 따라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 이를 통해 통화완화의 수준을 조정할 것이라고 부연. 한편, 가타야마 재무상은 최근 엔화 약세를 우려하고 있으며 과도한 환율 움직임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발언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15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월 2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 1월 뉴욕주 제조업지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경제 및 증시, 불확실성을 넘어 불안정성의 시대로 진입 - Financial Times

(How investors should deal with instability)

- 최근 미국 경제는 단순한 불확실성을 넘어 구조적 불안정성이 이번 사이클의 핵심적 특징으로 작용. 일례로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무역정책이 불안정성을 더하고, 고용은 전체적으로 증가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가계의 구매력 부담도 심화. 이러한 불균형은 연준에 과도한 긴축과 성급한 완화 사이의 불편한 선택을 강요
- 다만 이러한 불안정성이 미국 주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그보다는 투자자들에게 하나의 지배적 서사에 집착하기보다, 방어적 차원을 넘어 더 넓은 범위의 기회 포착을 위한 분산투자과 자기규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

■ 미국의 성장 촉진 위주 정책, 단기적 성공 가능성 높지만 금융위기 초래할 위험 - WSJ

(Trump Wants to Run the Economy Hot. There's a Good Chance He'll Succeed.)

- 미국 경제는 지난해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를 시현했고, 금년에도 트럼프 정책으로 작년 수준을 뛰어넘는 추가적 성장을 기대. 이는 다음의 3가지 경기부양책에 기인. 첫째, 감세 법안으로 인한 근로자 급여 증가와 환급금 등은 성장을 촉진시키며, 상반기 연간 성장률을 0.5%p 올릴 것으로 추정. 자본지출 전액상각 등은 기업 투자를 촉진
- 둘째, 금융권 규제 완화 등으로 투자 및 대출 활성화 예상. 셋째, 트럼프의 연준 장악 노력 등으로 금리인하 및 완화적 통화정책이 전개될 가능성. 이들은 모두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양책이며, 단기적으로 경제를 활황으로 이끌 가능성도 상당. 다만, 장기적으로 부채-거품 문제 증폭에 따른 시장 붕괴 위험을 경계할 필요

■ 세계 각국, 정치적 개입 확대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 - The Economist

(It's not just the Fed. Politics looms over central banks everywhere)

- 각국 중앙은행은 독립성을 유지하며 물가안정에 기여. 그러나 주요 선진국은 재정부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확대되면서 중앙은행에 대한 정치적 개입 여지가 증가. 이에 각국 정부는 대중영합주의에 따른 중앙은행 독립성 저해 시도를 정당화
- 일례로 연준 파월 의장에 대한 형사 기소로 연준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 이러한 행태는 EU, 일본 등 다수의 여타국에서도 관측. 다만, 채권시장은 아직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 이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정치권 개입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 등에 기인. 물가안정은 중앙은행의 독립성 유지가 안전한 방법임을 상기할 필요

- **신흥국 증시, 달러화 약세 外 추가적 수혜 등으로 슈퍼 사이클 진입했을 가능성 - 블룸버그**
(An Emerging Markets Supercycle Has Just Begun)
 - '25년 신흥국 투자는 달러화 약세, 분산 투자 강화(내년에도 지속될 전망) 등으로 눈부신 성과. 하지만, 최근에는 MSCI 신흥국 지수 상승률이 '10년 이후 2년 이상 미국 지수 상승률을 넘어선 적이 없는 선례 등으로 투자자 우려가 증가. 그러나 다음 이유들로 신흥국 투자는 슈퍼 사이클에 진입했을 소지
 - 첫째, 지정학적 불안정·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정책 불확실성 증가·첨단 제조업 원재료 수요 확대 등으로 광물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이 예상되며, 이는 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칠레, 브라질 등)에 수혜 전망. 둘째, 베네수엘라 채권 정상화 가능성 및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제자금 유치 촉진 방안 발표
 - 셋째, 글로벌 투자자들의 AI 열풍 확산. 중국의 저비용 AI 기술 발달과 AI의 공급망 상당 부분(한국의 반도체 기업 등)이 개발도상국에 존재. 이에 신흥국 투자는 우려와 달리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유익한 기회를 제공할 소지
- **미국 금융시장, 정부 압박에 의한 연준 구성원 변화 시 본격 반응할 소지 - 블룸버그**
(Here's When Markets Will Start Caring About Fed Independence)
- **미국 식품물가 상승, 장기의 고질적 문제로 저소득층 중심 타격 우려 - 블룸버그**
(Grocery Inflation Is Still a Thorn in America's Side)
- **미국의 유일무이한 초강대국 지위, 군사력·경제력 고려 시 지속될 가능성 - WSJ**
(America Is the Sole Superpower Again)
- **미국, 전략적으로 그린란드 중요하나 해법은 침공이 아닌 동맹 협력 - 블룸버그**
(Greenland is too important to invade)
- **일본 국채금리와 엔화 환율의 괴리, 당국의 개입 초래할 소지 - 블룸버그**
(Tiki-Takaichi and a Yen for Approval)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